

1950년대 미국 패션과 푸들 스커트

이 희 현

관동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The American fashion of the 1950s and the Poodle Skirt

Hee-Hyun Lee

Prof., Dept. of Education of Home Economics, Kwandong University.

(2007. 12. 15. 접수, 2008. 1. 25. 채택)

Abstract

The reason that we are familiar with fashion from the 1950s is because of the work such as New Look done by a french fashion designer, Christian Dior who had taken on an almost mythical significance by his name. Moreover, in the sense of popularity, the appearance of Marilyn Monroe and Audrey Hepburn, two typical Hollywood actresses who each has directly-opposed image, is the symbol of youthful America of the 1950s and represents the remarkable start of the American fashion.

Still, these days designers and mass medias recall the fashion from the 50s remaking and parodying it to suit public's taste.

Being due to the World War II, Europe suffered not only the loss of its national tradition and reputation but also got a fatal blow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On the other h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ccupied a primary position in the world and outstandingly became the most powerful country.

The American fashion of the 1950s represents youth and newness and rejects outdated and outmoded style. In this period, appears the indication which announces previously the youth culture.

Poodle skirt is the fashion item that acquired popularity among young american women and girls in the late 1950s. In effect, it is the fashion as American as apple pie.

A costly A-line skirt had been transformed into a cheap felt skirt. Instead of a real poodle dog which was carried by French women like an accessory, they embroidered a poodle dog on the lower edge of their skirt. As deriding the snobbish gait, they swayed themselves frantically to the rhythm of Rock n' Roll which swept those days. This was an attitude of young Americans against the existing trend of Europe.

Poodle skirt showed the free spirit and intention of young people unbound to custom and established vogue. In addition, in the aspect of comprising the American spirit of independent, pioneer, and subjective American people, it goes beyond the bounds of common concept of fad.

Poodle skirt is an unique symbol of the 1950s' American fashion which prognosticates the advent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success in modern fashion world which was changing after 1950s.

Key Words: American fashion(미국패션), Poodle skirt(푸들 스커트), New Look(뉴룩), Youth culture (청년문화)

Corresponding author ; Hee-Hyun Lee

Tel. +82-11-9796-1546, Fax. +82-2-760-4484

E-mail : thimble@hanmail.net

I. 서론

본 연구는 문화 현상 중의 하나인 패션을 대상으로 삼아, 1950년대 미국이 유럽의 패션과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탐색하고자 했으며, 1950년대의 미국 패션의 독특한 점이 어떻게 확립되었는가를 찾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1950년대 미국의 여성들은 가치관이 변하기 시작했고, 그녀들의 의복에 대한 태도도 또한 바뀌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미국의 패션은 이 시기부터 유럽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적 패션을 추구하였고 유럽의 패션과는 차별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1950년대 패션이 우리들에게 친숙한 것은 그 이름만으로 패션의 신화가 되어버린 프랑스의 디자이너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의 뉴 룩(New Look)을 비롯한 일련의 작품들이 있어서이다. 또한 대중적으로는 허리우드의 대표적이면서 상반된 이미지의 두 여배우 마릴린 몬로와 오드리 헵번의 모습은 50년대의 젊은 미국의 상징이며 미국 패션의 출발을 의미한다.

지금도 디자이너와 대중 매체들은 50년대 패션을 대중들의 취향에 맞게 재생하고, 패러디하면서 추억하고 있다.

젊은 상의에 허리가 잘록한 A라인 실루엣의 디올의 스커트를 입은 모델들의 사진은 두고두고 50년대 패션의 명장면들이다. 또한 목에 스카프를 두르고 오토바이를 타는 오드리 헵번의 청순한 모습(로마의 휴일)과 지하철 송풍구 위에서 치마를 감싸 쥐던 마릴린 몬로의 관능적인 포스터(7년만의 외출)는 아직도 보는 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였음은 물론이며 시대를 거치며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 우리에게 반복해서 주입되어 왔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유럽은 국가의 전통과 명예에 손상을 입었음은 물론 정치, 경제적으로 치명적이었던데 반해 미국은 세계 속에서 국가 입지를 굳혔을 뿐 아니라 세계 최강대국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프랑스나 이태리의 명문 오피 꾸뛰르 디자이너들은 오랜 동안 유럽 여성들에게 패션이란 우아하고 고귀한 것이라 인식시켜 왔다. 그러나 1950년대에 들면서 유럽의 디자이너들은 변하여

야 했다. 미국은 여성 의복의 소비 지출이 가장 많은 국가가 되었으나 미국 여성의 의복 태도는 유럽여성과는 달랐다. 유럽의 디자이너들은 미국의 기성복 시장으로 앞 다투어 진출하였다. 가볍고, 활동적이고 때로는 저속하기까지 한 미국여성들의 기성복 취향을 존중하여 디자인을 하여야만 했다. 이러한 변화들은 현대 세계 패션 속에서 미국 패션이 독자적인 자리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전후의 미국 여성은 가치관이 변하였다. 패션은 젊음을 상징했으며 낡고, 오래된 패션을 거부했다. 아울러 미국 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전후의 1950년대 젊은이들은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며, 거기에 몰두하는 방법으로 전쟁의 충격을 잊고자 하는 등 청년문화를 예고하는 징후들이 나타난다.

이때부터 젊은이들은 그들만이 즐기는 음악, 춤, 패션에 열광하게 되고, 그들만의 독자적 하위문화를 갖게 되었다. 이는 60년대, 70년대로 계속 이어지며 패션계에 젊은 바람을 일으켰고, 패션의 주체를 젊은 사람들로 바꾸어 놓기에 이르렀다.

푸들스커트(Poodle skirt)는 1950년대 후반 미국의 젊은 여성과 소녀들을 열광시켰던 패션의 아이템으로서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적” 패션이다.

전체적인 스타일은 유행하던 A라인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나, 스커트 앞면에 푸들 강아지를 수 놓거나 별도의 푸들 모양 장식을 달아 키치적인 의상을 만들어 이를 푸들 스커트라 불렀다.

오피 꾸뛰르의 값비싼 A라인 스커트 대신 뽀뽀하고 값싼 펠트로 A라인을 연출했고, 스커트 자락을 장식한 자수와 프린트 푸들 강아지 모양은 프랑스 여인들이 액세서리처럼 애지중지 품에 안고 다니던 애완견인 푸들 강아지에 대한 조롱이었다. 이 모습은 엄청나게 비싸고 화려한 옷감으로 만들어진 유명 디자이너의 옷을 입은 채 조심스러운 걸음걸이로 살롱을 우아하게 오가는 유럽 상류층 여인들의 자태에 대한 저항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소녀들은 유행했던 로큰롤(Rock and roll) 음악에 맞춰 광적으로 몸을 흔들며 춤을 출 때 이 스커트를 즐겨 입었다. 주류 계급의 유행에 반발하고 도전하는 미국 젊은이들의 모습이었다.



〈그림1〉 기성복을 입은 미국여성



〈그림2〉 기성복을 입은 미국여성

푸들 스커트는 유행현상으로 설명할 때 특정 하위문화에서 짧은 기간 동안 유행하고 사라지는 패드(fad)일 뿐이다. 그러나 푸들 스커트는 기존의 유행과 관습을 거부하는 젊은이들의 자유로운 정신과 의지를 보여주었으며, 독립적, 개척적, 주체적인 미국인의 아메리카니즘 정신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패드의 개념을 넘어선다.

푸들 스커트는 50년대 이후 변화하는 현대 패션 속에서 미국의 등장과 성공을 예견하는 50년대의 미국 패션의 독특한 상징물인 것이다.

II. 1950년대의 미국의 패션

1. 새로워진 미국

20세기 초반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산업 경제국으로 발전했다. 1차 대전 후 주요 채권국으로 성장한 미국은 2차 대전 동안에 전체주의적 경제, 사회 조치들을 시행함으로써 대공화의 여파를 무사히 극복할 수 있었다. 미국의 산업 생산력은 3배로 증가했다.¹⁾

미국은 여러 인종과 유럽 이민자들의 거대한 집합체이다. 모든 이주자들이 아버지의 세계를 버리고 떠나 왔으나 미국은 전반적으로 아버지인 유럽으로부터 해방되었다.²⁾ 미국에 있어 유럽은 아버지와 같은 존재이지만 자식을 부당하게 다루고 자식의 발전을 가로막은 비정한 아버지일 뿐이었다. 미국은 이와 같은 정치적인 독

립을 계기로 문화 전반에 걸쳐 유럽의 영향을 벗어나고자 하였다. 하나로 이어지는 고유의 전통문화를 가질 수 없었으나 그 해결 방법으로 그들의 자녀들에게 국가의 실재를 느끼게 하고, 아이들 자신이 미국의 일부라고 느끼게 하도록 교육하였다.³⁾

1940년 후반 이후 다채롭고 풍성한 미국 대중문화는 전 세계 젊은이들의 상상력의 원천이 되었으며 공식문화를 주도하던 가부장적인 엘리트 계급들을 당혹하게 만들었다. 수많은 이의 삶이 파괴당한 전쟁의 경험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가정이 관습이었고, 존경심이 독과 같으며, 사회는 비난 받아야 할 대상으로 여기게 만들었던 것이다.⁴⁾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미국에는 주류 문화에 대한 대항문화가 일어났다. 비트세대의 작가들이 주류 사회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반항적인 모습을 보였다. 작가 잭 케루악(Jack Kerouac)은 비트 운동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고, 일련의 소설을 통해 이 운동의 규범인 가난과 자유를 찬미했다. <길 위에서 On the Road> (1957)는 이 계열의 첫 소설이면서 가장 유명하다. 이 책은 앨런 긴즈버그(Allen Ginsberg) 같은 비트 운동의 주요작가들을 뿐만 아니라 시인·대중가수·제즈광·신비주의자·기인(奇人)으로 이루어진 광범한 지하문화에 대중의 관심을 끄는 기폭제가 되었다.

또한 앨런 긴즈버그는 “물질문화에 광분하는 미국이라는 국가는 …그 권위의 그릇된 이미지를 방어하기 위해 세계와의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각자 개인적인 것의 영적인 독립이 있는

곳이 미국이었다”, “미국은 발견 될 것”라는 등의 주류 세대의 대한 도전적인 글을 남겼다.⁵⁾

당시 미국의 젊은이들은 이러한 기치 아래 독창적인 아메리카니즘을 꿈꾸었고 문화적으로도 그들만의 미국적 문화의 성취를 소망하였다. 결과적으로 문학을 선두로 하여 음악, 조형예술, 철학 등의 문화까지도 미국 문화는 독자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2. 미국 여성의 의복 태도 변화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은 미국의 국가적 위상을 변화시켰고, 미국인들의 가치관은 혼란 속에서 새롭게 변화하였다. 전쟁 기간 동안 남성들의 역할을 대신 해왔던 여성들은 그 어느 시대 보다 여성으로서의 자신감을 맛보았다. 그러나 1950년대의 미국은 가정 이데올로기가 새롭게 분출하였고 다시 여성에게 여성적 역할을 수행하기를 원하였다. 미국 사회는 전쟁 기간 동안의 어머니로서, 부인으로서의 역할 부채를 제자리로 돌려놓으려고 애썼다. 그런가 하면 전쟁동안 여성들이 종사해 왔던 일터에서는 여성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었다. 여성들로서는 자유 대 복종, 순종의 이데올로기의 혼란과 여성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경험하게 되었다.

20세기의 전환기에 프랑스의 디자이너들은 여성들의 변화에 느리게 대응했다. 프랑스의 디자이너들이 부르주아 여성들의 생각을 표현하고 우아하고, 성숙한 여성을 패션의 리더로 삼고 있을 때 미국은 이미 1890년대부터 짧은 스

커트나 체육복을 입은 활동적인 여성이 인기 있는 우상이 되었다. 프랑스나 영국보다는 미국의 노동자 계급의 여성들이 옷을 잘 입으려는 욕구가 퍼져 있는데 이것은 그녀들에게는 의상이 일종의 대중문화, 도시문화와 연결시켜주는 끈을 의미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⁶⁾

이 시기에 이미 미국 여성 중 8000만 명이 기성복을 입고 있었다<그림1,2>. 이 기성복들의 디자인은 물론 당시 유행하는 프랑스의 오프 꾸뛰르 디자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미국의 기성복 산업이 이처럼 활기를 띠게 된 것은 미국식의 판매방법을 활용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판매방법은 의류판매촉진을 위한 상품화 계획을 세운 후, 매스컴에 의해 알려지고, 광고를 하게 되며, 백화점에서는 고급상품과 대중상품을 차별 없이 판매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이런 결과로 프랑스 여성이 40%가 기성복을 착용할 때 미국 여성은 95%가 기성복을 입고 있었던 것이다<그림3,4>.⁷⁾

미국여성들에게 있어 유행 의상이란 단순한 옷의 의미가 아니었다. 가정생활을 벗어나 문화생활에 참여하는 한 방법이고 수단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전통의상을 버리고 사는 이민 사회생활에서 익숙해진 것이었다. 자신의 위신을 세우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제대로 인정받으려 한 결과 사회적 압력에 쉽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⁸⁾

미국에서는 수공업보다는 기계 생산이 이루어지고, 재봉틀의 대량 생산과 보급이 유럽에 비해 빨라져 재봉틀은 가정용, 상업용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또한 특정 의상품목을 만들기 위한



<그림3> 50년대 미국여성
(FASHION The Century of The Designer
1900-1999.)



<그림4> 50년대 유행의상
(FASHION The Century of The Designer
1900-1999.)

패턴, 신체치수를 측정하는 정확한 체계를 도입하게 되고 산업계는 여성용 기성복을 엄청난 양으로 생산해냈다.

3. 탈 유럽화한 미국 패션

미국 여성들의 패션이 오픈 꾸뛰르의 지배와 단절할 수 있었던 것은 대량생산과 소비의 단계에서 자유로운 사회들이 나타낸 새로운 가치들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디자이너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은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7년 오랜 동안 전쟁으로 경직되어 있던 여성들을 향하여 새로운 패션을 내놓았다. 전쟁 이후에 여성들의 패션은 짧은 스커트와 각이 진 어깨 스타일의 옷을 입었다. 뉴 룩(New Look) <그림5>은 이와는 정 반대로 어깨의 선이 좁으며, 허리는 자연스러운 제 허리선을 유지하였고, 스커트의 단이 넓어진 긴 스커트와 가슴 선에 악센트를 준 새로운 시도의 디자인 이었다.⁹⁾ 디올은 그 해에 총 매출액이 120만 프랑이나 되는 부와 명성을 얻게 되었고, 사업 확충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두 가지의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자신의 이름을 붙인 향수회사의 설립과 미국 시장에 진출이었다. 미국 여성들은 50년대 최고의 패션 구매자였다. 게다가 그녀들은 프랑스 문화를 동경하고 있었으므로 자신의 디자인은 미국 여성들의 장식적, 미적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켜 줄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당시 미국 여성들의 프랑스의 고급 오픈 꾸뛰르 의복보다는 기성복을 선호하였다. 이러한 미국 여성들의 구미에 맞추기 위하여 프랑스의 꾸뛰리에르 디올은 1948년 ‘디올 뉴욕(Dior New York)’이라는 이름으로 뉴욕 5번 애비뉴 730번지에 기성복을 판매하는 고급 뿌레 따 뿌르Ep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다.¹⁰⁾

꾸뛰리에르라는 신분은 17세기 루이 14세 때부터 프랑스 왕실에서 인정하여, 자국은 물론 유럽의 패션을 그들의 손에서 이루어내던 이들로 프랑스 문화의 전달자이고 프랑스 패션의 자존심이었다.

그러나 50년대 이후 그들은 자만심을 버려야만 했다. 미국 패션시장에서 기성복을 판매해야

했으며, 미국 여성의 요구대로 기성복에 어울리는 디자인의 의복을 생산하게 된 것이다.

현재는 파리, 밀라노, 런던과 더불어 세계 4대 패션 컬렉션이 된 뉴욕 패션 위크는 1943년에 시작됐다. 이 행사는 막강한 패션 소비국인 미국을 겨냥한 상업적 조치이자 문화적 배려였다. 당시에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파리 패션쇼를 직접 볼 수 없었던 미국 내의 저널리스트들을 위한 행사였으며 그 이름조차도 ‘프레스 위크(Press Week)’라고 명명하였다.¹¹⁾

50년대 아직 미국에는 유럽과 맞서는 내세울 만한 디자이너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기성복의 발달은 미국여성의 의복 취향을 유럽여성들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게 했다. 물론 프랑스의 패션이 50년대의 미국의 기성복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한 것이었으나 미국 여성들은 프랑스의 디자이너들이 제시하는 대로 모든 유행을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았다. 당시 역량 있는 미국의 디자이너들은 일상복보다는 허리우드 영화의 의상디자이너로 활약하는 일이 많았으며 영화 산업의 발달로 이 영화의상들은 프랑스의 디자이너들에게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다. 미국 여성들의 패션은 전통적인 프랑스의 멋쟁이 여성들을 변화시킬 만큼 확실히 기발하고 독창적이었다. 당시 미국에서 생활한 후, 파리로 돌아온 프랑스 <ELLE>지를 창간자인 엘렌 라자레프 모습에 대한 묘사는 다음과 같다. “그녀는 빛깔이 요란스럽고, 생기 있으며, 화려하고, 쇼킹한 물건들을 좋아했고, 질기다거나 품질이 좋다는 이



<그림5> New Look(FASHION The Century of The Designer 1900-1999.)

유로 의복을 선택하지 않았으며, 빨리 착용하고, 빨리 버리는 의복을 선택하는 이로 바뀌어 있었다는 것이다.¹²⁾ 엘렌의 패션에 대한 태도 변화에 대한 이와 같은 묘사는 당시 미국패션의 특징에 대한 정확한 설명인 것이다. 미국의 패션은 이제 프랑스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참신하여 놀라움의 대상이 된 것이다. 그녀는 미국 생활을 통해 그곳의 문화에 익숙해지게 되었고 프랑스의 취향과 특질에서 해방되었던 것이다.

III. 푸들 스커트(Poodle skirt)

1. 청년문화의 등장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청년문화가 나타나면서 쾌락주의적인 가치들이 가속적으로 유포되기 시작했고 개인주의적인 주장들에 새로운 측면을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이 새로운 문화는 비순응성을 선언했고 새로운 가치들-개인적인 표현, 여유 있는 휴식, 유머, 그리고 자발성-을 촉진시켰다.¹³⁾ 두 대전 사이의 기간에 일어난 문학운동도 철학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이 시기의 주요 소설가, 시인, 극작가들은 철학자들처럼 세계 대전의 비참함과 전쟁이 약속한 것들이 지켜지지 못한 데 대한 환멸을 느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과학의 혁명적 발전, 특히 인간 정신의 숨겨진 비밀을 찾아내려는 정신 분석학으로부터 커다란 영향을 받았다. 좌절, 냉소주의, 환멸 등을 주제로 삼았던 이 시기 문학속의 전반적인 시대적 분위기는 여러 작가들의 서로 다른 개성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었다. 미국의 어니스트 헤밍웨이(1899-1961)의 초기소설, T. S. 엘리엇(1888-1965)의 시, 그리고 독일의 베르톨트 브레히트(1898-1956)의 희곡들이 나타났다.¹⁴⁾

50년대에는 미국과 유럽에서 세대 간의 갈등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과거의 보호받던 앳된 소녀들이 자의식 있는 틴에이저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물론 인위적으로 조장되고 상업적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미국과 유럽에서, 그리고 소련과 일본에서조차도 부모와 윗사람에게 대놓고 반항하는 불량청소년들은 사회문제가 되었다.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을 대변하는 청년

지식인들도 모든 관습적인 것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양가집 소녀들은 페티코드를 받쳐 입은 넓은 스커트를 입고 엄마의 감시의 눈초리 속에 첫 댄스 수업을 받으러 다녔다. 거기서는 아직 로큰롤은 가르치지 않았다. 그러나 10년 후에는 로큰롤이 가장 보수적인 댄스 학교에서도 기본적인 프로그램의 하나가 되었다.¹⁵⁾

세계 제 2차 대전 이후 최초의 소수 청년패션들이 나타났다.(재즈 광, 생 제르맹 데 트레, 비트족) 이러한 초기의 ‘안티 패션들’은 1960년대에 새로운 전망과 의미를 얻게 되었다. 그 이후 경향들-히피, ‘바바’, 핑크, 뉴 웨이브, 라스타, 스카, 스킨헤드-은 의복과 외모 가치, 취향, 그리고 행동에서 다양한 모습들을 드러낸 반 순응주의적인 청년문화에 의해 더욱 불어나게 되었다.¹⁶⁾

2. 로큰 롤과 패션

젊음의 분출이 특히 강하게 표현 된 것은 20대 미만 세대에 의해 받아들여진 음악형태, 바로 록음악에서였다.¹⁷⁾

1950년대 미국은 로큰 롤의 시작이면서 동시에 로큰 롤의 시대였다. 미국에서 50년대의 십대들은 로큰 롤에 열광하였고, 이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 것에 모든 열정을 쏟았다. 이전까지의 음악과 춤이 차분한 리듬과 음정을 따르는 것이었던데 비해 로큰 롤은 무대 위에서 혼신을 다해 몸을 움직이는 퍼포먼스였고 젊은이들은 광적으로 이러한 동작에 빠져들었다. 미국의 로큰 롤의 상징은 엘비스 프레슬리(Elvis Presley)였다.

1956년 그의 최초의 히트 곡 <Heartbreak Hotel>로 인기는 절정에 달했고, 미국의 유명한 <Ed Sullivan Show>의 출연으로 그는 로큰 롤의 제왕으로 군림하기 시작하였다.

청년들은 그가 입은 헐렁하고 긴 자켓과 험란한 색상의 의상들을 보고 흥분하고 흉내 내어 입었다. 남녀가 모두 손을 마구 뻗치고 엉덩이를 뒤흔드는 그의 춤과 동작들을 그대로 따라 하면서 새로운 자유로움을 만끽하였다. 제임스 딘(James Dean)이 영화 속에서 훌륭하게 연기해낸 좌절감으로부터 탄생한 로큰롤은, 1960년대

음악적인 에너지로 까지 발전하게 되었다.¹⁸⁾

3. 푸들스커트의 유행

푸들 스커트는 스커트에 푸들을 수놓은 스커트로서 유행 현상으로 설명하면 확실히 패드(fad)이다. 짧은 수명, 매우 특수화된 유행이기 때문이다.¹⁹⁾ 시대적으로는 1950년대 초반, 미국 10대 소녀들을 주축으로 하는 소수의 하위문화 그룹에 의해 받아들여졌던 의복 현상이었다.

패드 중에는 단발머리(bobbed hair)나 1920년대 스웨터에 늘어뜨리던 진주 목걸이처럼 패드에서 클래식으로 자리 잡은 현재까지 지속되는 스타일들도 있다.²⁰⁾ 그러나 푸들스커트가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는 것은 대중들이 이 의복을 50년대의 상징적 미국 패션으로 존중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푸들스커트는 미국이 유럽의 고급 패션문화를 수용 혹은 배척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1950년대 미국의 독특한 패션이다<그림6>. 50년대에 미국에서의 푸들 유행과 인기는 프랑스 문화의 동경에서 비롯된다. 당시 프랑스인들은 푸들 강아지를 국가의 개로 여기고 좋아하였으며 일부 미국인들은 그 유행에 따라 가기도 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소녀들은 프랑스의 고급 유행을 그들의 취향에 맞게 바꾸고, 조합하여 그들만의 문화를 상징하는 의복으로 입기를 원하였다. 문화 간 접촉이 증가함에 따라 옛 것이 변화할 뿐만 아니라 새것도 생겨난다. 서로 다른 문화 요소들이 특이한 방법으로 조합되어 새

로운 생활양식이 나타나기도 한다. 푸들 스커트는 이러한 이 문화 커피(Kulturmelange) 현상²¹⁾ 중의 하나이다.

당시 유행했던 엘비스 프레슬리류의 로큰롤 음악과 그와 어우러졌던 춤도 1950년대에 미국의 십대 소녀들이 푸들 스커트를 즐기게 된 이유 중 하나이다. 푸들 스커트는 넓게 돌면서 움직이기 쉬웠다. 페티코트를 받쳐 입은 이 푸들 스커트는 넓게 돌 때 춤의 동작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스커트는 자유를 상징화하는 도구이고 10대들이 자신을 표현하는 행동이었다.

소녀들의 스커트에는 LP관, 음악 노트, 로큰롤 댄스를 추는 모습 등을 장식하기도 했지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장식물 단연 푸들이었다.

푸들 스커트는 스커트 위에 끈에 묶여 있는 푸들이 장식되고, 위에 입는 블라우스나 스웨터는 몸에 꼭 맞는 스타일이었다. 치마 속에는 두 겹의 페티코트, 캉캉 페티코트 등을 입었고 허리에는 허리선을 더욱 강조하는 넓은 벨트를 하여 더욱 날렵한 몸매를 드러내었다<그림7>.

50년대의 유행 헤어스타일은 스트레이트 한 스타일 보다는 부드럽고 우아한 컬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짧은 머리도 즐겼다. 긴 머리의 경우 머리를 뒤로 묶는 포니테일(pony tail)스타일이 유행하였으며 거기에 쉬폰 스카프를 둘렀다. 푸들스커트를 입은 여성들은 이 모든 헤어스타일을 받아들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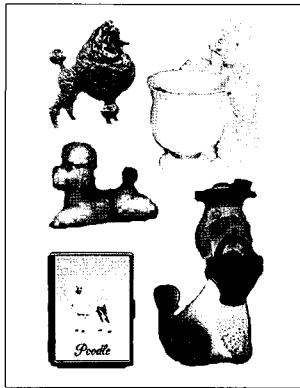
푸들스커트에는 굵이 낮은 편한 신을 신었는데, 짧은 양말에 새들 슈즈(saddle shoes), 페니 로퍼(penny loafers), 색상 있는 스니커즈 스타일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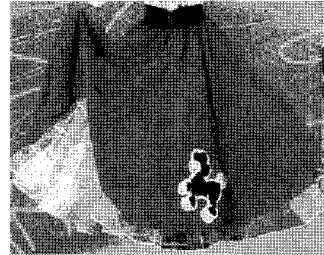
<그림6> 푸들 스커트
(www.fiftiesweb.com/fashion/poodles.htm)



<그림7> 푸들 스커트를 입은 소녀
(www.fiftiesweb.com/fashion/poodles.htm)



〈그림8〉 푸들을 응용한 제품들
(www.fiftiesweb.com/fashion/poodles.htm)



〈그림9〉 푸들 스커트
(www.fiftiesweb.com/fashion/poodles.htm)

었다.²²⁾ 또한 얼굴에는 고양이 스타일의 안경 (cateye glasses)을 걸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장식이었다. 푸들스커트에서만 아니라 강아지 푸들은 50년대 어디에서나 인기였다. 도자기로 된 푸들, 플라스틱 푸들, 핑크, 화이트, 블랙 푸들이 유행하였다<그림8,9>. 의복에 장식으로도 사용되는 것은 물론 쓰레기통에 까지 푸들의 모양이 새겨졌다. 이것은 일본에서 주로 만들어 진 세밀한 수공예품들이었으며 전쟁이후 승전국인 미국에서 이들 물건을 선호했기 때문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머리 모양에도 푸들의 영향은 계속되어 푸들 헤어컷이 유행하게 되었는데 이 푸들 스타일의 머리는 푸들 프렌지(poodle frenzy)라고도 하는데 당시 유명한 희극 여배우 루실 볼(Lucille Ball)의 트레이드마크인 짧은 헤어스타일로 유명하다.²³⁾

핑크색 푸들 스커트의 영향으로 소녀들의 색상이라고 여겼던 핑크는 남성복에도 유행되었다. 남자들은 핑크 타이, 핑크 셔츠, 핑크색 목욕 가운을 입는 것을 즐겼다. 회색 플란넬 슈트에 핑크색을 받쳐 입는 사람도 있었다. 이러한 차림은 중성적인 남성복의 색상의 급진적인 변화였다. 핑크색 화장품으로 조화를 이룬 핑크빛 욱실, 어디에나 있는 핑크 푸들, 그리고 엘비스 프레슬리의 핑크색 캐딜락에 이르기까지 핑크는 도처에 있었다.²⁴⁾

미국의 초등학교 행사 중에 특별한 옷을 입는 날이 있다. 이 날은 독특한 모자, 잠옷, 인디언

옷 등을 입는다. 의복을 통해 미국의 역사를 알려주고, 어린이들의 개성 있는 자신의 표현방법을 키워주고자 하는 행사이다. 학교에 따라서는 이런 행사 중 하나로 푸들스커트 데이로 정하는 곳이 있다. 그 날은 전교의 어린 여학생들이 한 마리 혹은 두 마리씩의 푸들강아지를 붙인 빨강, 파랑, 분홍의 펠트 스커트를 입고 등교한다.

50년대 미국 젊은이들의 정신을 되새기는 회고적 행사로 부모들과 아이들은 즐겁게 이 행사를 준비한다. 푸들스커트는 이제 막 유럽의 문화적 그늘에서 벗어난 미국 젊은이의 패기와 참신함을 지닌 의복이며, 미국패션이 세계 패션 속에서 독자적으로 자립하는 계기가 되는 자랑스러운 패션이었음을 잊지 않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IV. 결론

유럽과 견줄만한 의상 디자이너가 아직 출현하지 않았던 1950년대 미국의 패션계를 고려한다면 지금 미국의 패션계는 비약적인 성장을 한 셈이다. 진(jean)으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린 켈빈 클라인을 위시하여, 현재 뉴욕의 패션 워크에서 활약하는 마크 제이콥스, 도나 카란, 랄프로렌 등은 미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이다. 그들은 유럽의 디자이너들과는 디자인 감각과 탁월한 비즈니스 수완으로 유럽 패션계와 구별되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미국 패션은 유럽 패션에서 분리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이후부터이다. 1950년대 이전과는 달리 1950년대의 미국 여성은 패션에 대한 인식을 스스로 바꾸기 시작했다. 미국 패션은 유럽의 패션과 구별되고자 했으며, 미국 패션의 독특한 특징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50년대 패션의 외관과 스타일의 변화를 세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았다. 그보다는 오히려 50년대 여성과 소녀들의 패션에 대한 태도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 몇 가지 원인과 현상을 점검하였다.

1950년대의 미국 여성들이 자신에 대한 자각을 모색하는 시대였다. 미국사회의 변화가 여성들이 착용하는 의복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전후의 혼란스러운 가치관의 변화 속에서 미국의 10대 소년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대변하여 줄 패션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현상들은 20세기 후반 미국의 패션이 유럽의 패션으로부터 분리·독립되는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1950년대의 미국의 패션을 살펴보는데 있어서는 첫째, 미국의 국가적 위상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전후 미국은 세계 속의 위치가 달라져 강대국의 대열에 합류는 물론 우뚝 서게 되었다. 그러나 전쟁으로 상처 입은 정신과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서 가치관은 혼란을 맛보게 되었다.

둘째, 미국 여성과 그녀들의 의복에 대한 태도 변화이다. 전쟁동안 사회의 현장에 뛰어들었던 여성들은 고급 의상 대신 기성복을 선택하였다. 유럽 여성들이 여전히 오픈 꾸뛰르의 의복을 입는 동안 미국 여성들은 자신들에게 적합한 의복을 개발하였다. 그녀들은 유행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실용적이고, 활동적인 의복을 원하고 생산했다.

결과적으로 미국 여성의 패션은 서서히 유럽 패션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프랑스의 디자이너를 미국으로 불러들여 그들이 디자인한 기성복을 입었다. 프랑스 여성들은 이제 오히려 미국 여성들의 자유롭고 가벼운 패션을 모방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위와 같은 미국 패션의 변화와 움직임 속에서 젊은 여성과 소녀들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패션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것은 푸들 스커트

(Poodle skirt)였다. 푸들 스커트는 1950년대 소녀들이 즐겨한 1950년대의 패드이다. 외적인 그러나 지금까지도 미국인들이 사랑하고 아끼는 미국적인 의상인 푸들 스커트는, 당시의 미국 소녀들의 독창적인 유행의상이었다.

첫째, 푸들의 유행현상은 1950년대 출현한 청년문화와 관련이 있다. 이 50년대를 시작으로 60, 70년대의 거센 청년문화운동은 계속 이어지게 된다. 청년들은 부모의 세대에 반기를 들고, 주류사회에 속하지 않은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그들만의 패션을 만들어 내기 시작했다. 소녀들이 주류 패션계의 스타일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키치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하위문화의 힘이었다.

둘째, 로큰롤은 푸들 스커트 유행의 원동력이었다. 로큰롤은 청년문화의 확고한 유타리였으며 버팀목이었다. 청년들은 음악 안에서 살았고 음악에 기대었다. 그 안에서 하나의 문화를 만들었고 청년들은 하나로 묶여졌다. 사회를 비판하고, 비주류에 빠졌고, 음악에 열광하였다. 가수를 우상으로 삼고 그들의 패션을 흉내 내었다. 소년들은 푸들 스커트를 입고 로큰롤을 즐겼고, 로큰롤의 리듬에 따라 춤을 추기 위해서는 푸들 스커트를 입어야 했다.

셋째, 푸들 스커트가 탄생하게 된 배경과 그 의복의 의미 분석은 바로 미국 패션의 독창성과 관련이 있다. 미국의 소녀들은 프랑스에 대한 동경과 동시에 조롱의 표현으로 푸들 스커트를 입었다. 푸들 스커트 뿐 아니라 머리, 신발, 액세서리까지 갖추었다. 이전 시대의 소녀들이 성숙한 여인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의상을 입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엄청난 도전이며 반항이었다. 이 시기에는 유럽의 청년들도 그들 문화가 요구하는 패션을 추구하기는 하였다. 이전의 어떤 시기에도 나타나지 않던 현상에 부모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고, 기성세대는 그들의 패션을 용납하기 힘들었다. 푸들 스커트도 이러한 반항적 청년 패션에서부터 비롯되었다. 그러나 푸들 스커트의 유행은 미국의 여성들에게 자신감을 안겨주었다. 유럽에서 전파된 A라인 스커트에 미국적인 감각을 덧붙여 그들만의 의복으로 재창조하였던 것이다.

20세기 전반까지도 존재감이 약했던 여성들

은 주류문화의 흐름 속에 순종하는 삶의 방식에 익숙했다. 그러나 50년대 미국의 여성과 소녀들은 그들이 입는 의복에 대한 태도 변화를 통해 편견과 관습의 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다. 그녀들은 50년대의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이처럼 자신들을 표현하고 나타내기 위해 스스로 새로운 이미지를 찾으려고 했고, 이로 인해 50년대 미국 패션은 현대 패션의 역사 속에서 '미국적 패션'의 독창적이고 창조적 스타일을 만들어 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노암 촘스키. 오애리 율김 (2000). *507년 정복은 계속된다*. 서울: 이후, p.76.
- 2) 한스 디터 겔페르트. 이미옥 율김 (2003). *전형적인 미국인*. 서울: 에코리브르, P.224.
- 3) Neil Campbell · Alasdair 공저. 정정호 외 역 (2002). *미국문화의 이해* 서울: 학문사, p.13.
- 4) 덕 파운틴 · 데이비드 로빈스 이동연 율김. (2003). *세대를 가로지르는 반역의 정신 Cool*. 서울: 사람과 책, p.77.
- 5) Neil Campbell · Alasdair 공저. 정정호 외 역 (2002). *Op. cit.*, pp.70-71.
- 6) 다이애너 크레인. 서미석역 (2005). *패션과 문화와 사회사*. 서울: 한길사, p.128.
- 7) 디디에 그롬바크. 우종길 율김 (1987). *패션의 역사*. 서울: 도서출판창, p.189.
- 8) 다이애너 크레인 (2005). *Op. cit.*, p.128.
- 9) Charlotte Seeling (2000). *FASHION The Century of The Designer 1900-1999*. Konemann. p.236.
- 10) 디디에 그롬바크 (1987). *Op. cit.*, p.101.
- 11) http://en.wikipedia.org/wiki/Fashion_week
- 12) 디디에 그롬바크 (1987). *Op. cit.*, p.192.
- 13) 질 리포즈베키. 이득재 율김 (1987) *패션의 재국*. 서울: 문예출판사, p.174.
- 14) 잉그리트 로세크. 이재원 율김 (2002). *여성들은 다시 가슴을 높이기 시작했다. 20세기 패션문화사*. 서울: 한길아트, p.276.
- 15) E.M. 번즈, R.러너, S. 미첨. 손세호 율김 (2001). *서양문명의 역사 IV*. 서울: 소나무, p.1169.
- 16) 질 리포즈베키 (1987). *Op. cit.*, p.325.
- 17) 잉그리트 로세크 (2002). *Op. cit.*, p.266.
- 18) 아이즈카 츠네오. 김진옥 율김(2001). *하루키 소설 속에 흐르는 음악*. 서울: 문학사상사, p.56.
- 19) 수잔 카이저. 김순심, 유은희, 이유경, 이은숙 역 (1990). *복식사회심리학*. 서울: 경춘사, pp.164-165.
- 20) Marilyn J. Horn (1975). *The Second Skin*. Foughto Mifflin. Boston. p.148.
- 21) 요아니 브라이덴바흐 · 이나 추크리글 (2003). *춤추는 문화*. 서울: 영림카디널, p.84.
- 22) www.vintageblues.com/history5.htm
- 23) www.fiftiesweb.com/fashion/poodles.htm
- 24) www.fiftiesweb.com/fashion/pink.htm
- 25) 덕 헵디지. 이동연 율김 (1998). *하위문화 스타일의 의미*. 서울: 현실문화연구.